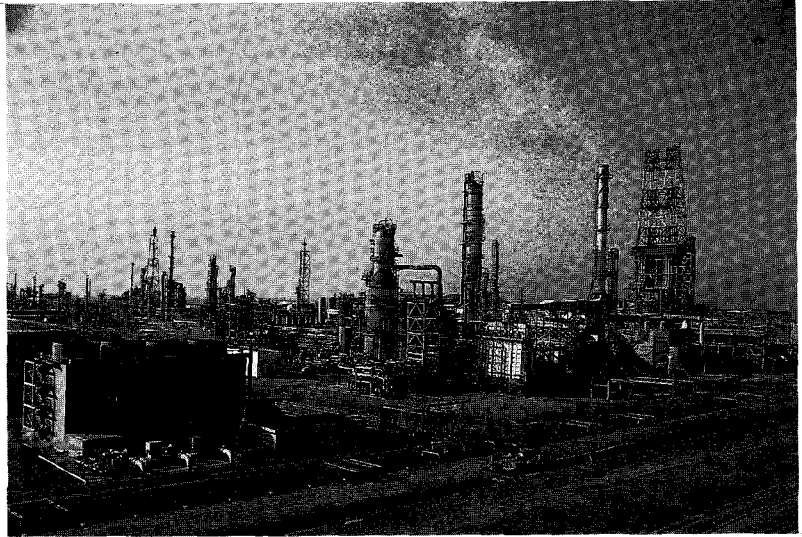


# 현대정유(주)



< 현대정유(주)는 종합에너지회사로 발돋움하기 위해 해외지사 확충과 연구개발에 진력하고 있다 >

## 2천년, 세계 일류 종합에너지 회사로 도약

지난 93년 7월 극동정유를 인수해 탄생한 현대정유는 2천년까지 정유업계의 정상을 차지함은 물론 세계일류 종합에너지회사로 발돋움 하겠다는 청사진을 펼친 바 있다.

그 이후 지금까지 현대정유는 끊임 없는 경영혁신, 공장의 안정가동, 그리고 손실감소를 통한 경영개선과 시장의 확대 등을 통해 괄목할 만한 경영성과를 달성하고 있다.

극동정유 인수 당시 4백 30여개에 불과하던 주유소 수가 2월 현재 7백 60여개에 이르고 있으며, 경질유 시장점유율도 6.8%에서 10.7%(94.12월기준) 성장했다. 또한 지난해에는 매출목표를 초과 달성함으로써 무한한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오일뱅크」 올해의 디자인으로 선정

현대정유는 지난 94년 6월 새로운 CI를 완료하고 신개념 주유소인 「오일뱅크」를 탄생시켰다.

기존의 주유소란 이름을 과감히 버

리고 독창적인 브랜드네임을 선보인 것은 주유소 문화를 새롭게 창조해 나가겠다는 현대정유의 강한 의지가 담겨있다.

「오일뱅크」는 또한 그 표기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국제화 개방화 시대에 적극 호응, 기업 이미지를 제고함으로써 다른 정유사와의 차별화된 기업 이미지를 구축하는데도 그 목적이 있다.

현대정유의 「오일뱅크」는 주유소를 대체하는 단순한 이름으로 개발됐다 기보다는 주유소의 기능을 한단계 더 높인 미래형 종합서비스센터로 발돋움하기 위한 장기적인 마케팅 차원에서 도입됐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오일뱅크」는 소비자들에게는 물론 정유업계에도 큰 영향을 주어 정유업계 CI 선풍을 몰고 왔으며, 디자인계에서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월간 디자인」으로 부터 「올해의 디자인」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차별화된 고객서비스로 고객 신뢰 형성

현대정유는 고객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계획을 수립, 고객만족 서비스를 펼쳐왔다.

지난해 전국의 계열 오일뱅크에서 「KISS」 즉, KIND(친절한), IMPRESSIVE(기억에 남는), SPEEDY(신속한), SMOOTH(부드러운) 서비스를 벌인바 있으며, 오일뱅크탄생기념 「오일뱅크영화제」 및 「오토시네마」 등도 개최해 고객들로부터 호응을 받은 바 있다.

또한 주유소와의 유대강화 및 대고객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임직원과 주유소간 「1인1주유소 자매결연」을 실시해 오고 있음은 물론 주유소 소장 교육, 양질의 제품을 제공하기 위한 정기적인 유류탱크 세척 및 주유소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한편 고객이 편리하고 신속하게 주유할 수 있도록 지난해 6월 1일부터 5천원권, 1만원권의 상품권을 발행했으며, 현재는 현대자동차와 연계, 고객의 다양한 욕구에 한걸음 더 다가서기 위한 제휴카드 발행을 추진중에

있다.

현대정유는 올해도 「무주리조트 스키축제」를 후원 한 바 있으며, 「오일뱅크 영화제」등 다양한 이벤트를 실시할 계획이다.

**20만 배럴 증설사업 차질없이 수행**

극동정유 인수후 현대정유는 종합발전 3단계 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차질없이 수행하고 있다.

그중 1단계는 “도약의 단계”로 올해까지 원유정제 시설 20만배럴의 증설사업을 통해 생산 능력을 현재의 11만배럴에서 31만배럴로 증가시킨다는 계획이다.

현대정유는 현재 20만배럴 증설사업의 조기 완공 및 정상가동을 위해 매진하고 있다.

이 증설사업이 완공되면 물량이 급격히 늘어날 것에 대비해 현재 PRE-MARKETING 체제의 구축 및 영업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기반을 바탕으로 현대정유는 내수시장 경질유 점유율을 15%까지 끌어올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업계의 중위권 확보 또한 무난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3단계 발전계획으로 정유업계 정상 도약**

“정상을 향한 성장의 단계”인 2단계는 오는 96년부터 98년까지로, 석유사업의 수직계열화를 완료하고 종합에너지회사로서의 면모를 갖추어나가는 시기이다.

또한 원유정제 시설 일산 30만배럴의 증설사업을 통해, 생산능력을 61만배럴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정제능력에 걸맞는 판

매망을 구축함으로써 시장점유율도 약 25%대로까지 증가시켜 약 5조원의 매출액을 달성할 계획이다.

종합발전 마지막 단계인 3단계는 99년부터 2000년까지로, “정상진입 및 안정성장의 단계”이다.

이 시기에는 원유정제시설 일산 20만배럴 규모의 증설사업을 통해 생산능력을 81만배럴로 향상시키고, 명실공히 국내 정유업계의 정상화를 차지하는 시기이다.

**2천년대 세계일류 종합에너지 회사로 성장**

현대정유는 유류의 안정적인 확보는 물론 석유사업의 수직계열화를 위해 지금까지 세계 곳곳의 유전개발사업에 참여해 왔다.

지난 89년 삼성, 유개공 등 국내 3사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스페인 REPSOL사 등과 함께 개발한 이집트 칼다 유전에서는 현재 하루 3만배럴의 원유가 생산되고 있다.

또한 지난 92년부터 벨기에의 PETROFINA사, 국내의 유공 등과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는 리비아의 NC 170, NC 171, NC 172 등 3개 광구에서도 현재 그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

그동안의 몇회의 탐사시추 결과로 미루어 볼때 향후 시추공에서 유전의 발견이 예상되고 있다.

현재 현대정유에서는 중국의 육상 지역 및 동남아와 호주 남미지역에서 유전개발의 타당성을 조사중에 있으며, 석유개발사업의 지분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필요하다면 광구를 매입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

현대정유는 2천년까지 국내 정유업계의 정상을 차지하고, 석유부분의 상류부분과 하류부분을 수직계열화해 완성하는 한편 가스사업, 크린에너지 사업에도 신규 진출함으로써 종합에너지회사로 발돋움하기 위해 해외 지사를 확충하고 있으며 부단한 연구개발 및 영업력 강화를 위해 진력하고 있다.



<기업이미지 제고를 위해 94년 6월 새로운 C를 완료하고 신개념 주유소인 오일뱅크를 탄생시켰다>